

## 하절기 에너지 절약 목표 대비 234% 초과 달성

- 전년 대비 5% 절감 목표 상회, 800만원 절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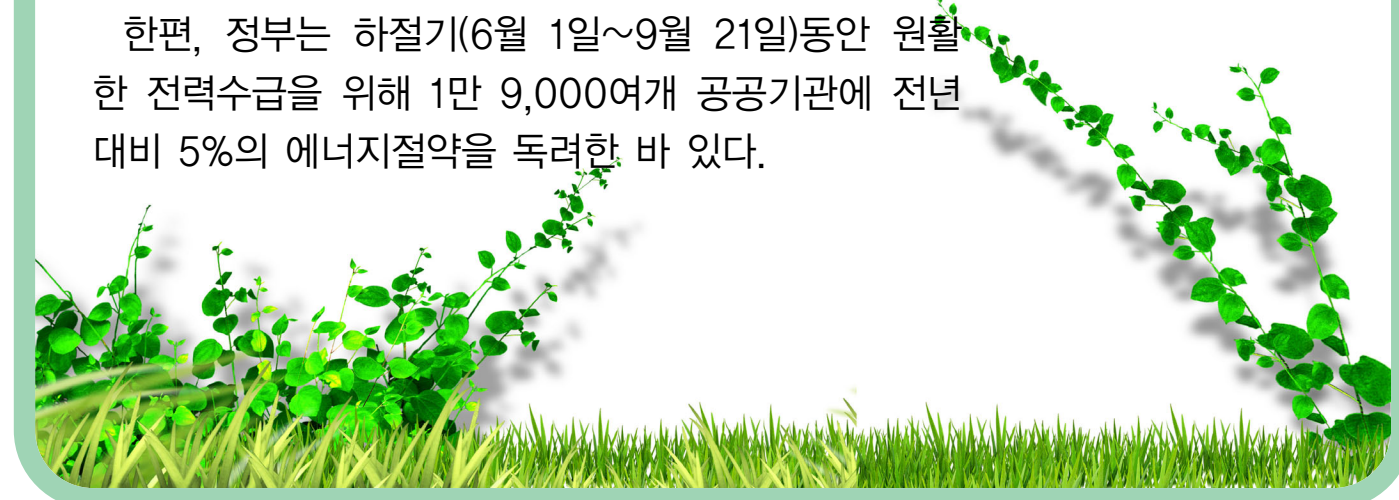
공단은 정부의 '하절기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실천한 결과, 정부 요구인 전년 대비 5% 절감 목표를 234%나 상회하는 11.7%(약 180Mwh)를 절감했고 전기료 약 800만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옥 내 실내온도를 항상 28°C로 유지했고 전력사용 피크시간인 오후 2시~5시에는 냉방기 순차운휴와 업무시간외 조명 및 컴퓨터 절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사무기기의 전원차단 등 전력 낭비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다.

또한, 에너지 절약 홍보용 포스터 1000장과 부채 1만개를 철도건설 협력사 및 철도 이용객들에게 배부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것을 적극 권장하기도 하였다.

공단 관계자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뉘터위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소속별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는 등 원활한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하절기(6월 1일~9월 21일)동안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해 1만 9,000여개 공공기관에 전년 대비 5%의 에너지절약을 독려한 바 있다.



## 외대역앞 휘경4 평면교차 철도건널목 폐쇄

- 지하차도, 보도육교 완공 후 3년5개월 존치로 안전우려 및 예산상비 -



외대역앞 휘경4 평면교차 철도건널목이 이달 25일부터 폐쇄될 예정이다. 도심속 철도건널목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아 공단은 건널목을 폐쇄하기 위하여 '08년 10월에 지하차도를, '09년 3월에 보도육교를 건설하였다.

공단 관계자는 "평면교차의 입체화를 위해 동대문구청과 총 258억원을 투입하여 '08년 10월에는 지하차도, '09년 3월에는 보도육교를 건설하였음에도 동대문구청에서 건널목 존치를 지속 요구하고 있으며, 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등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철도건널목을 대체할 안전한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등 입체화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데도 1일 430여회 열차를 운행하는 가운데 평면교차 건널목 존치를 요구하는 것은 건널목개량촉진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고귀한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그간 평면건널목 유지에 위해 매년 2억원 이상의 관리비를 공단이 부담해 왔으나,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데도 동대문구청이 유지하길 원한다면 동대문구청에서 직접 유지 관리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동해남부선 부산 도심구간 교량공사 신공법 추진

- 급곡선구간 최초 FPSM공법 적용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동해남부선 부산 도심지 양정동~안락동간 4.8km에 설치하는 교량상부공사의 상량식을 지난 13일에 갖고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동해남부선 부산 부전역~울산 태화강역(舊 울산역) 간 65.7km의 단선철도를 복선전철로 개량하는 곳이며 부산 도심지에 위치하는 구간으로 1935년 동해남부선 개통 이래 13개의 건널목이 있었으나 입체화 등 시설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체증을 야기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영남본부는 이 구간의 입체교량 가설공사에 신공법인 FPSM 공법을 적용한다. 이 공법은 교량상부 구조를 30m 1경간(PSC Box Girder)씩 전체 140경간을 동래정거장 광장 부지에서 제작·운반한 후 대형 거치장비(Launching Girder)로 직접 인양하는 방법이다.

특히, 온천천~수안건널목간 260m구간은 곡선반경 300m의 급곡선으로 대형 거치장비에 회전장치를 장착하여 국내 최초로 급곡선에 PSM공법이 적용된다.

이번에 적용되는 신공법은 PSC BOX 거더를 플랜트(제작장)에서 제작함으로써 품질관리가 우수하고 도심지에서 공사 중 발생 소음이 없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기존 상부공 시공보다 공기를 2/3(경간 : 기존 10일→ 현행 3일로 7일단축) 정도 줄일 수 있어, 2015년말 부전~일광간 30km를 조기 개통하여 부산 시민들의 교통편의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FPSM(Full Precast Span Method) 공법 : PSM(Precast Span method) 공법을 개량한 신공법



## 폭염사고 대비 안전관리 강화

- 근로자 무더위 쉼터 운영 및 지하횡단 굴착구간 선로감시원 배치 -

충청본부(본부장 김영하)는 지속적인 폭염속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건설현장에 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

대전도심 공사구간은 지형적 특성상 그늘이 없고 불볕더위의 영향으로 작업장 온도상승이 큰 만큼 폭염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본부에서는 열사병과 고온에 취약한 근로자 스트레스 관리를 위하여 폭염주의시간에는 작업을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근로자 무더위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하횡단 굴착공사 구간은 온도상승이 발생하면 레일 장출 등이 궤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상시 선로감시원을 배치하고 계측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하복수 건설처장은 '감성안전관리 리더십'으로 연일 불볕더위에도 공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시원한 화재를 제공하며 격려하였고, 폭염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한 대응을 당부하였다.

(충청본부 임상민 기자)



## 충청본부, 샘골지역아동센터 초청 철도사랑캠프 개최

-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희망 선사 -

충청본부(본부장 김영하) KR봉사단은 지난 9~10일 양일에 걸쳐 후원기관인 샘골지역아동센터의 아동 및 청소년을 초청하여 철도사랑캠프를 개최하였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지역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추억만들며 주기 일환으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즐거운 시간을 마련하였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표정은 즐거웠다. 특히 바닷가 갯벌체험지에서는 신기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뛰어 놀며, 공방체험에서는 스스로가 만든 천연비누를 기념품으로 간직하는 등 짧지만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KR봉사단은 소외계층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더 밝고, 더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어려운 곳을 찾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것이다.

(충청본부 김건조 기자)



## 중앙선 용문~서원주간 신설노선 열차운행 시작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화사업을 추진중인 강원본부(본부장 김재규)는 지난 16일 새벽 이 구간에 대한 열차 운행노선을 성공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설된 구둔역과 매곡역은 역 직원이 없는 무배치 간이역으로 바뀌어, 석불역은 폐지된다. 구둔역과 매곡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승차 후 열차안에서 승차권을 발부받으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운행노선 변경은 복선전철화사업 중 하행선 건설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인 상행선은 8월 하순 시설물 검증을 거쳐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영업시운전을 한 뒤 9월 하순에 서원주까지 복선전철로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문~서원주간이 개통되면 청량리에서 원주까지 현재 1시간 10분에서 55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 폐철도부지 '녹색에너지 자원'으로 재탄생

-내년 완공 3MW/h규모 전력 생산 일석이조 효과 기대-

강원본부(본부장 김재규)는 중앙선 복선철도 건설로 발생한 총복 단양군 일원의 폐철도부지 약 3만㎡를 친환경 녹색에너지인 태양광발전 사업부지로 사용하기로 했다.

폐철도부지는 노반에 깔린 자갈이 지닌 토양특성으로 인하여 활용도가 부진하였으나, 녹색철도 이미지를 추구하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한 결과 태양광발전용 사업부지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관계자는 "현재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9월부터 발전설비 설치에 착수해 내년부터 약 3MW/h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강원본부는 지난 5월에도 이 지역 일대 1만 7천500㎡의 폐철도부지를 태양광발전용으로 사용을 허가한 바 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과 전력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못쓰고 버려졌던 폐선부지를 활용해 친환경 녹색에너지를 생산하는 아이디어는 매우 참신한 것으로, 강원본부는 향후 발생되는 폐철도부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기사시판

## 주요뉴스 (8. 7 ~ 8. 23)

-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본격 추진(조선일보 8. 7)
- '공사 소음·진동으로 양식장 피해' 첫 인정(서울신문 8. 7)
- 공기업 공공요금 원가 5년간 9배나 부풀렸다(한국일보 8. 7)
- 동서고속철 예산 50억 환수 위기(강원도민 8. 7)
- 강릉레일바이크 10일 첫 운행(강원도민 8. 7)
- 자기부상열차 운행사 누기될까 '촉각' (경인일보 8. 7)
- 철도시설공단 1112억원 재무개선(중도일보, 충청투데이 8. 8)
- 수도권 고속철 수서역 또 지연(아시아경제 8. 8)
- 호남고속철 신호설비 공사·감리용역 발주(충청투데이, 중도일보, 전북일보 8. 9)
- 레일 온도 55도 더위 먹은 열차들(조선일보 8. 9)
- 인천공항철도 '청라역사' 10월 본격 착공(인천일보 8. 9)
- 오늘 철도시설공단 180명 정기인사(충청투데이 8. 10)
- 인천공항철도 청라역 내년 하반기 개통(파이낸셜 8. 10)
- KTX 사고, 경쟁체제 도입이 해법이다(조선일보 8. 11)
- 중부내륙철도 복선화 무산 위기(대전일보 8. 11)
- 철도 부실설계 '삼진아웃제'(경기일보 8. 13)
- 판대~동화역 구간 폐선 활용 '고민'(강원일보 8. 13)
- 동해남부선 철도 건널목도 추억 속으로(국제신문 8. 13)
- 복선전철 강릉시내 구간 올해 말 착공(강원일보 8. 13)
- 철도시설공단 서해선 설계최적화로 212억 절감(파이낸셜뉴스, 충청투데이 8. 14)
- 원주~강릉 복선전철 연말 착공 수도권 1시간대로 가까워진다(서울신문 8. 14)
- 부산도심 동해남부선 철도 건널목 역사 속으로(국민일보 8. 14)
- 12조 '태국 수관리' 수주 총력(한국경제 8. 16)
- 北·中, 훈춘-나선 철도 연내 착공 합의(한국경제 8. 16)
- 브라질 77조원 경기부양(매일경제 8. 16)
- 이번 추석엔 행선역서도 KTX 전라선 탈 수 있다(한국일보 8. 16)
- 달리던 열차 객차 분리, 승객이 지나다났다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국제신문, 매일경제, 대전일보, 영남일보, 경상일보 8. 17)
- 중부내륙철도 복선화 무산위기 '술렁' (충청투데이 8. 17)
- 대가성 없어도 돈만은 공짜 무조건 처벌... 김경연따 만든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 국제신문 8. 17)
- 철도공단 "부패행위 꼼짝마" (충청투데이 8. 20)
- 감리에서 역세권 개발사업까지 확장(서울신문 8. 20)
- 철도산업 CEO과정 참여하세요(매일경제 8. 20)
- 복선전철 서원주~평창 구간 연말 착공(강원일보 8. 20)
- 기차버려 달고 달리던 트럭, 경운기 충돌(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국민일보 8. 21)
- [기고] 지자체의 성숙한 행정을 기대한다(해럴드경제 8. 21)
- 대곡~소사철 조속 추진 청원(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 8. 21)
- 능력있는 설계용역업체 선정...발주 공정성 높아진다(중도일보 8. 21)
- 철도시설공단 에너지절약 성과(중도일보 8. 22)
- 천안 철도 건널목 추억 속으로(대전일보 8. 22)
- 무궁화호 다리위에서 스톱(동아일보 8. 22)
- 동서 고속철도 조기 착공 새누리당 대선공약 건의(강원도민 8. 22)
- 전남 서부권 주민 70% "전남~제주 해저고속철 찬성"(광주일보 8. 22)
- 원주~강릉 전철공사 백두대간 훼손(국민일보 8. 23)
- 청령 위반업체 제재 강화(충청투데이 8. 23)
- 공공기관 민영화 '졸스톱' (세계일보 8. 23)
- 가는 길도 쓸쓸한 일용노동자의 죽음(한겨레 8. 23)
- 기업은 비상경영 몸부림치는데... 정부는 '밴드'급 대책만(동아일보 8. 23)

경조사

- 수도권본부 북부건설처 경의/경춘PM부 장형식 부장 모친상  
- 발 일 : 2012년 8월 16일
- 부산시청 파견 이광희 처장 차녀혼  
- 일 시 : 2012년 9월 1일(토) 오후 12시 50분  
- 장 소 : 대전 엑스포컨벤션 웨딩홀